

대웅제약, '나보타' 독일·오스트리아 출시... 영토확장 속도

소송 약재에도 글로벌 공략 박차
에블루스, 현지 유통·마케팅 담당
호주·싱가포르 연내 발매 예정



나보타

/대웅제약

대웅제약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나보타 전체 매출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유럽에서 '누시바'로 판매중인 나보타는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정식 출시됐다. 지난해 유럽 내 최대 시장인 영국에 출시하며 유럽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빠르게 유럽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유럽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지역 파트너사인 에블루스가 누시바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내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에블루스는 현지 미용 의료 전문 유통사인 노비아(Novvi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발매를 준비해왔으며, 이달 중순부터 현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간 시장 규모가 6900억 원에 달하는 유럽 연합(EU)에서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누시바의 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보타는 국내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2월 기준 60여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개국 이상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나보타로 14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보다 78.5% 급증한 규모다. 이 중 해외 매출은 10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7%에 달한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123.3%) 성장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49%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나보타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보타는 지난 1월 20일 싱가포르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싱가포르 허가를 획득한 국산 보툴리눔 독신은 나보타가 처음이다. 싱가포르의 보툴리눔 독신 시

장 규모는 작지만 높은 국민소득에 힘입어 미용 및 의료 산업이 발달돼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불린다.

대웅제약과 에블루스는 올해 다 유럽 연합 국가에 추가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중국 허가 및 진출을 전담하며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연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부사장은 "역내 최대 시장인 영국에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에 발매하며 유럽 연합 시장 내 '누시바' 브랜드 인지도와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누시바가 전 세계 독신 시장 2위인 유럽 연합에서 K-바이오와 K-독신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GC인삼公, 화륜삼구 유통망 확보... 中 판매매장 10배 확대

양사 지난해 MOU... 사업 구체화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 공동개척



지난 2월 24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화륜삼구 본사에서 KGC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왼쪽 네번째)와 화륜삼구 구화위 총재(왼쪽 다섯번째)가 전략적 협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가 중국 최대 OTC(일반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전문기업인 화륜삼구(華潤三九)와 손을 잡고 인삼공사의 중국 전용제품 출시 및 중국 내 유통망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으로 KGC인삼공사는 자사의 정관장 제품을 화륜삼구가 보유한 약국을 비롯한 화륜그룹 내 유통망을 활용하여 병원, 슈퍼, 소펄몰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다.

이를 위해 KGC인삼공사의 허철호 대표와 화륜삼구의 구화위 총재는 지난 2월 24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화륜삼구 본사에서 'KGC인삼공사-화륜삼구 간

전략적 협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KGC인삼공사와 화륜삼구는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화륜삼구는 중국의 국민 감기약 '999'의 제조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국 대표 국유기업인 화륜그룹의 OTC 전문 자회사다. 화륜그룹은 중국의 4대 국유 기업에 속한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142조 규모로 유통, 소비재, 건설, 부동산, CHC(건강사업부문)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해 공감했으며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신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이번 화륜삼구와의 협업모델을 통해 정관장의 브랜드 파워, 연구개발 역량 등이 화륜삼구의 시장 장악력, 유통 파워 등과 결합해 중국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KGC인삼공사는 약 50만개에 달하는 중국 OTC 시장 내 화륜의 유통망을 통해 약국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기존 1만개 수준이었던 판매 매장 수는 10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비약적인 유통망 확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향후 중국 내에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권 시장도 공동 개척하겠다는 계획에도 뜻을 함께 했다.

한편, KGC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이사는 화륜그룹 산하 건강식품기업인 동아아교의 정결 총재와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 건강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협업 및 신규유통 진출 등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대형 민간기업 복성그룹과 미팅을 진행하고, 온라인 보건식품 판매, 중국 H&B 산업 및 홍삼의 효능 연구 분야에서 양사의 협업 기회를 발굴하기로 논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사 '스카이조스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대상포진 백신)

4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신기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가 국내 시장 1위를 달성했다. 4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신기록을 갱신해 국산 백신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스카이조스터의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54%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51%, 2분기 52%, 3분기 56%, 4분기 57%로 매분기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경쟁 제품과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조스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세계 두 번째이자 국내 최초 대상포진 백신이다.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가운데 2017년 정식 출시된 스카이조스터는 우수한 안전성과 면역

원성,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도즈를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백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28억 달러(약 3조 6000억원)였던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0%를 상회하며 2028년에는 63억 달러(8조 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조스터 역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20년 5월 태국에서 첫 글로벌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개별 국가 허가와 연내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보령 소세포포에암 신약 '젠텔카' 국내 출시

미국 내 대표적 소세포포에암 2차치료제

보령이 새로운 기전의 소세포포에암 신약 '젠텔카'를 국내 정식 출시했다.

젠텔카는 스페인 제약사 파라마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 '1차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소세포포에암'에 쓰인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번 정식 출시를 통해 의료기관에 본격적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이미 2020년 7월에 발매가 이뤄졌다. 젠텔카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세포포에암 2차치료제로 자리잡아 지난해까지 5억35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소세포포에암 환자 중 40% 이상의 환자들이 2차 치료제로 젠텔카를 처방받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17년부터 보령이 젠텔카에 대한 판매 및 유통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2차 이상 소세포포에암 치료제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젠텔카의 등



소세포포에암 신약 젠텔카

/보령

장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란셋 온콜로지지에 실린 젠텔카 허가 근거 문헌에 따르면 전체 환자군 기준 객관적 반응을 35%, 평균 반응지속기간 5.3개월, 매 3주 간격 1회 투여받는 투약 용이성,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던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젠텔카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치료제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분만 2000건 달성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분만 2000건을 달성했다. 개소 이후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지난 달 2000건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개소 4년만이자, 지난 2021년 12월 분만 1000건이 넘는 이후 약 1년 만에 이룬 성과로 저출산 시대에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고령 산모를 포함한 고위험 분만 비율이 약 70%에 달해 고위험군 임신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검증됐다.

병원측은 모아센터가 개소 4년 만에 분만 2000건을 달성한 것은 임신부의 출산과 산후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분만 건수가 늘어나고, 산모들의 니즈가 다변화됨에 따라 추후 84병동 산모 병상 확대는 물론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통해 임신부에게 최적의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